



실학사상과 교육

1. 실학사상
2. 실학사상의 전개과정
3. 실학사상에 나타난
근대적 실용주의 교육관



실학사상과 교육

- 17, 18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의 공리공론(空理公理다스릴 리空理公論논 할 론: 헛된 이치와 논의란 뜻으로 사실에 맞지 않은 이론과 실제와 동떨어진 논의)을 비판하고 그릇된 사회제도를 혁파하려는 사회 개혁 사상 즉, 실학이 등장하면서 교육의 이념과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당시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추상적, 현실 괴리적인 성리학을 비판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증적인 학문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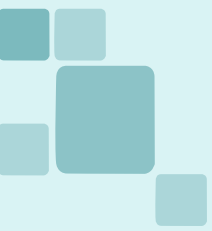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 실학은 실사구시의 약칭으로 중국 <전한서>의 “학문을 닦고 옛것을 좋아하며 실제의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한다”는 말에서 연원하다.

- 실학은 ‘실사구시’를 학문연구의 방법으로 ‘실용지학(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을 학문연구의 내용으로 ‘경제치용(정치, 경제, 사회등 국가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제도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실천적 구현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을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과거의 권위화된 유교이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양명학, 서학, 고증학 등의 학문을 수용하면서 실학은 학문의 실증적 연구와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주창하였다.

실학사상의 등장배경

- 16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번에 걸친 오랜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땅이 황폐화되어 못쓰게 되고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은 소홀히 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사회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양란은 조선사회가 사회,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능한지,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약한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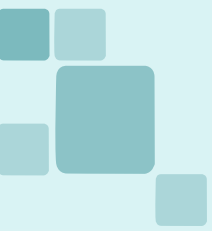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 지도이념이었던 성리학(유교)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자기 전통에 대한 반성과 황폐된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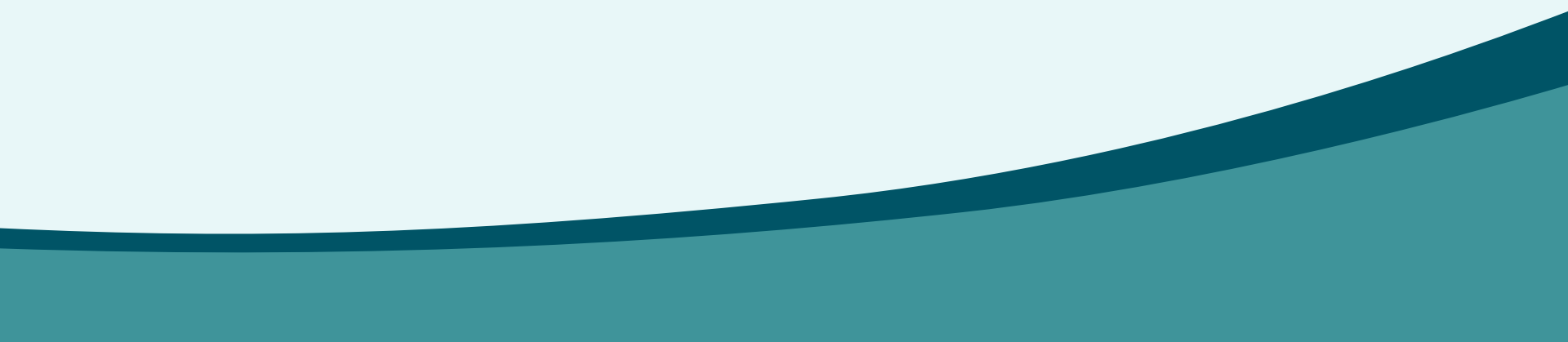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학문을 연구하자고 주장한 학자들의 많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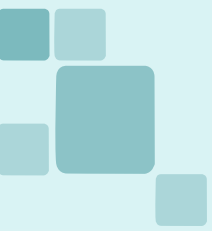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사변적인 유학사상은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시기에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실학이 대두되었다.

즉, 성리학이 초기에 참신한 기운을 잃고 현실생활과 동떨어진 이론에만 치우치자, 사실에 입각한 비판정신이 일게 되어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중국의 명말, 청 초에 일어난 고전연구의 학풍, 서양의 선교사들에게서 전해진 서양문물에 영향을 받음)과 서양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학풍으로 생겨났다.




- 실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는 사실과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과 학설만 따지는 당시의 유학과는 달리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등에 관한 국학의 연구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실학은 민족의식과 민족에 대한 자각을 높여 현실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던 민족적, 근대 지향적 성격의 학문이었다. 즉, 실학자들은 학문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백성들의 실생활에서의 쓰임과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실학자들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의 신분제도와 직업의 구분 그리고 남녀의 차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분이 좋지 않으면 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신분 차별을 없애야 한다.



실학과 성리학의 차이점

- 실학은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고 성리학(주자학)은 동양사회의 사상계를 지배한 일종의 동양중세적 세계주의였고 지배층의 사상이었다. 주자학적 화이사상 아래에선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도 중국의 그것의 일부분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으나 실학자들은 중화사상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와 지리, 언어,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한 연구에 열중하여 이를 체계화하였다.

- 근대지향적 성격이다. 실학자들 스스로는 근대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동양 고대를 이상사회로 추구하였으나 그들의 주장이나 이론들은 중세적 계급의 해소, 금속화폐의 유통, 상공업의 발달, 외국무역의 개발, 토지제도의 개혁 등 근대지향성이 강하여 개방 이후에 까지 강한 영향을 주었다.

- 주자학이 조선왕조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다면 실학은 민중의 권
에 선 지식인들의 개혁사상이었다

실학사상의 전개과정

- 성리학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등한시한 데 반하여 실학은 현실성과 과학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실학은 정치와 사회 현실에 나타났던 병리적 문제를 이론과 실천의 괴리로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학문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 영, 정조이래 반계 유형원과 성호 이익에 이어 박지원, 정약용등은 그동안 화이정신에 대립하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공리공담의 유학을 사회개혁의 실용적 학문으로 전환하여 백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사회 전반의 개혁등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실학은 실질적으로 볼 때 대개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세가지 흐름이 전개되었다.

1) 경제치용 학파(18세기 전반)

- 반계 유형원과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제도 전반의 개혁적 주장을 일컫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소농민에게 토지의 균등한 배분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종래의 예학, 성리학의 비생산적, 관념론적 풍속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혁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반계 유형원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전제를 내세웠다. 특히 농민들에게 땅을 고루 나누어 주는 균전제는 이후 토지 제도 개혁안의 출발점이 되었다.

- 당시 농촌에서 급락하는 소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남

2) 이용후생 학파(18세기 후반)

백성들의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 식, 주를 뜻하는 용어

- 한양에서만 조금씩 발달하던 상업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지방도시에도 현저한 발전을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암 박지원 같은 이는 전국적인 시장의 형성과 유통의 확대,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켜 민생의 풍요를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업 및 공업을 장려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도시의 서민층의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새로운 문학예술운동을 통해서 상인, 수공업자를 포함한 서민층의 혁신적 학풍을 조성했다

3) 실사구시 학파(19세기 전반)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실사구시이다.

-추사 김정희는 관념적인 것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했던 조선 성리학의 학풍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사실적인 것, 구체적인 것, 실증적인 것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의 세계관과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인 사물관, 역사관, 지리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실학사상에 나타난 근대적 실용주의 교육관

실학자들의 근대 교육적 사고는 민권의식, 평등사상,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입각하여 그들은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종래의 성리학적인 교육 내용에 과학, 역사, 지리, 기술 등과 같은 실용 학문을 첨가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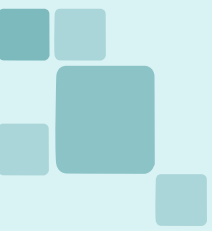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1) 교육의 기회균등

민본주의에 기초한 교육의 평등화 주장은 적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서출은 출세가 막혀있는 조선사회에서 인재선발을 신분의 고하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재능을 키우도록 하는 근대적 민주교육 정신이 배여있다고 할 수 있다.

* 유형원은 당시의 이러한 불평등한 계급사회를 심각한 폐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정하려 했다. 그는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귀천이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어리석은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배움에는 문벌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과 재능의 있고 없음이 중요하다. 그는 학생이 상급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기회도 배우는 자의 능력과 재능에 의해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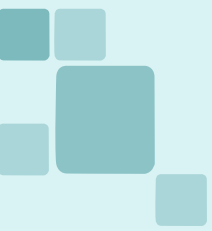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 연암 박지원은 선비의 학문은 농, 공, 가를 겸업해야 하고 종래의 사농공가로 분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사는 농공가를 겸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암박지원은 당시 선비들의 허위적 면모와 기만성을 조망하고 농, 공, 상업과 천연관계를 보일 수 있는 자야말로 선비의 진실한 모습에 해당한다고 역설하였다.



* 연암박지원은 허생전 및 호질과 같은 10여편의 한문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서 그는 독특한 해학을 통해 고루한 양반과 무능력한 위정자를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에 빠져 공리공론만을 일삼는 양반들을 비판하면서 쓸모 있고 유용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릇된 신분제도로 말미암아 능력있는 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개탄하면서 신분제도를 근본적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호질: 이 작품은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관내정사(關內程史)" 속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 소설로서 양반 계급의 허위적인 도덕관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박지원의 대표작이다. 기문(奇文)으로 널리 알려진 소설인데, 위선적 인물을 대표하는 북곽과 동리자를 내세워 당시의 양반 계급, 즉 선비(실은 선비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부패한 도덕 관념을 풍자하여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등장 인물인 북곽 선생은 도학(道學)이 높고 인격이 고매(高邁)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으며, 동리자는 수절 과부로 절행(節行)이 뛰어나 천자가 칭찬하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동리자에겐 성이 다른 아이들이 다섯이나 있었으니, 그녀는 실은 음부(淫婦)였다. 또 북곽 선생은 이런 동리자와 밤에 밀회를 가졌으니, 그 역시 위선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북곽 선생은 아이들에게 여우로 몰려 곤욕을 당하고, 다시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호랑이에게 질책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새벽에 만난 농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며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도덕성이 높다고 소문난 북곽 선생이 결국은 여우 같은 인간이요, 온 몸에 똥을 칠한 더러운 인간이요, 끝까지 위선을 버리지 못한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 풍자하고 있다. 또한 그 정절로써 천자와 제후들에게까지 우러름을 받는 과부의 다섯 아들이 모두 성이 다르다고 비꼰 것은 겉모습, 혹은 세상의 평판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음을 통렬하게 풍자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유학자의 위선과 아첨,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호랑이라는 동물의 입을 빌려 질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허생전: 허생원은 가난하고 빈궁한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러나 양반이랍시고 10년을 공부하기로 맘을 먹어, 7년째 아내의 잔소리도, 바가지도, 푸념도 넘기며 어렵사리 공부만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못 참는 아내의 화에 어쩔 수 없이 약속한 10년을 못 채우고 떠납니다.

그길로 한양, 아니 조선에서 최고로 부자라는 변 진사를 찾아갑니다.

오자마자 딱 1만냥을 빌려달라는 허생의 배짱에 놀란 변 진사는, 웬만한 부자들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지만 아무말도 없이 해달라는대로 하였습니다.

그중 딱 100냥만 아내에게 보낸 후 남은 9천 9백냥을 챙겨들고 과일이 많이 모인다는 안성으로 떠납니다. 안성에서 온갖 과일을 보름이 지나도록 사모았습니다.

결국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상에 올릴 과일이 없자, 모아둔 엄청난 과일들을 상인들에게 몇 갑절씩 돈을 받고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후 허생은 또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는 말총이 유명한데, 말총도 있는대로 사들였더니, 말총으로 감투 등을 만들지 못해 큰 난리가 나자, 또 몇 갑절의 돈을 받고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허생은 딱 1만냥으로 몇 십만냥을 벌었습니다.

살기가 힘든 백성들이 도둑이 되어 도둑이 산에도, 바다에도 어디에든 나타나자, 허생은 이 큰 도둑무리들의 두목을 찾아가 협상을 합니다. 바로 아내와 논만 있다면 도둑이 되지 않을 거라는 도둑들의 말에 얼마든지 돈을 줄테니 아내와 소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던 도둑들은 허생이 말이 진짜임을 알고 대왕마마리 부드러워 속한 날까지 모두가 아내와 소를 구해왔습니다. 그런 도둑들을 모두 모아, 비어있는 배를 사뒀던 허생은 함께 무인도로 떠났습니다. 그 곳은 매우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섬을 같이 가꾸며 돌봐주던 허생은 도둑들을 남겨놓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데리고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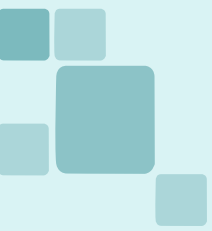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그런 후 10년만에 변 진사를 찾아와 떡하니 10만냥을 내놓습니다.

변 진사와 허생원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변 진사는 허생원의 진실됨과 호탕함, 대범함을 존경하고, 이런 인재를 이완대장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완대장이 찾아와 허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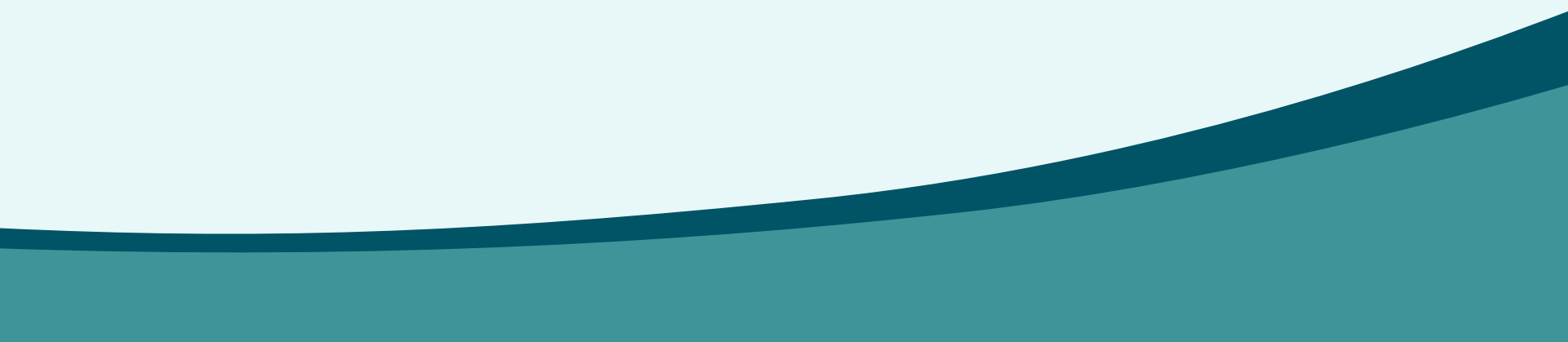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商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땀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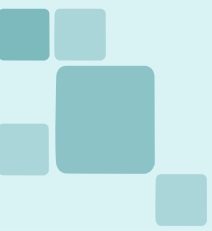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이어나 급이 벗어날 듯 뛰어다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한 자국이 없었다.



* 추사 김정희 역시 “하늘이 인간에게 재주를 내려주는 데에는 당초에 남북이 나 귀천이 없는데도 인간이 성공하고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하여 태어날 때 인간의 능력은 누구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에도 이 견해를 적용하여 설명했다. 인간의 성장과정이 다른 것을 그 인물의 성공과 성공치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원인으로 첫째, 불평등 교육의 폐단, 둘째 과거에의 몰두, 셋째 협소한 교육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들 3가지를 적절히 조정하여 제시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산 정약용도 그가 살았던 시대에 차별적 인간본성관에 의한 일반 민중의 교육 가능성이 무시되는 것을 비판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의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누구라도 재능을 타고 날 수 있으며, 교육의 고른 혜택으로 제각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편협하고 지역적인 인재선발의 방법을 개혁하여 일국의 인재들을 빠짐없이 등용해야 할 것이며, 동서남북에 구애됨이 없이 하고, 멀거나 가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아무 상관없이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2)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

성호 이익은 모든 학생은 철저히 능력 본위로 학습하게 한 후 학교에 진급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는 과거를 통해서 학문연마와 관
리등용을 시킬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하여 상급교육기
관으로 진학할 때마다 능력에 따라 선발할 것을 주장했다. 그
렇게 해서 최종적인 교육을 마치면 벼슬을 받게 되는 형식적 학
교교육을 통한 인재선발의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관우론을 통하여 과거 위주의 교육이 가져온 폐단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그들의 공부하는 것은 사장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머리털이 마르기도 전에 과거공부를 하는데 요행히 급제하여도 여전히 서투르고 거칠어 배운것이 소용없고 소용되는 것은 배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문이라는 것은 사륙문만을 숭상하며 한 두시간 안에 짓도록 하니 재주껏 할 수 없고 고시관도 옳은 사람이 적으므로 글을 뽑는 기준이 없다(관우론)”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익 자신을 일컫는 말이다

* 반계 유형원은 과거제도가 인간의 행실과 품성을 이루는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시험없이 추천으로서만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인 공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유형원의 공거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하고 배치하자는 것으로 학교교육과 관리 선발의 일원화를 강조한 것이다.

- 담헌 홍대용은 고을 안의 자제 중 8세 이상은 모두 모아 가르치고 효제충신의 도를 익히고 사어서수의 재주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우수한 자를 뽑아 올리고 대학까지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렇듯 실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누구나 양성하여 인재로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근대적 학제

- 반계 유형원은 <학교사목>에서 다음과 같이 학제의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에는 태학을 설립하고 또 중학과 서학을 설치한다. 서학에는 내사와 외사를 둔다. 자도의 남영에는 모두 영학을 설치하고 주와 현에는 읍학을 설치한다. 그리고 서울의 각방에는 방상을 설치하여 어린이를 가르쳐야 한다.

- 이는 기존의 학제인 성균관, 학당, 향교의 체제가 학교교육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 단계의 교육기관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사설 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이의 개선책으로 각 지역 중심의 단계적 학제를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 유형원은 교육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는 교육제도를 구상하였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통하여 사와 민이 혈통을 따라 세습되던 기존의 체제를 버리고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나누자는 것이다.

- 유형원은 학제상 초등 수준의 교육을 주장하여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기에서부터 교육할 것을 제안하여 초, 중등, 대학과 같은 단계별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학제를 주장하였다.

4) 민족교육 중시

실학자들은 전통적인 화이관과 사대의식과 같은 중국중심의 세계관에서 민족중심의 사고 체계로 전환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교육 실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성호는 역사 인식에 있어서 주체적인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사실을 각성하기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서인 동국통감을 모르고 중국사만 알고 한 당시의 선비의 자세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퇴계집', '동국사', 등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켜 민족의 주체적인 자기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 다산 정약용도 사대부의 자제들이 제 나라의 옛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비록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는다 하더라도 무지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학문을 덮어 놓고 배척하는 풍조를 통렬히 비판하였다. 다산은 당시의 학자들이 글을 쓰는데, 역사적 사실을 중국의 것으로부터 인용하는 풍조를 지적하면서 각각 유배 중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이용한답시고 중국의 일이나 인용하고 있으니 이건 또 불품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삼국사, 고려사, 국조편감, 동국통감, 징변록, 연려실기술 및 우리나라의 다른 글 속에서 그 사실을 뽑아내고 그 지방을 고찰하여 시에 이용한 뒤에에라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가 나올 것이며, 세상에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교육내용으로 국사, 국문학, 지리 등을 중시하고 향교는 교육과정에 적어도 삼국사, 고려사, 국조편람 등 우리나라의 사료와 문헌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과거 개혁안에서 시험과목으로 역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가운데에 삼국사, 고려사, 동국통감, 국조편람 등을 포함시킬 것과 여기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낙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양란이후 민족의 정체성 혼란과 국난의 극복을 위한 사대부들의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민족교육은 중국중심에서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와 학문 그리고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교육내용의 개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